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5주일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신임 본당 사제
- 캔사스 한인 카톨릭 공동체

추석 합동위령미사

9월 27일(주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에 감사를 드리며, 조상들을 통하여 베풀어주신 은총을 되새기고,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의 은총을 얻도록 기원하는 ‘추석합동위령미사’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추석맞이 민속 잔치

- 일시 : 2015년 9월 26일 오전 11:00시작.
- 장소 : Corporate Woods Founder’s Park (9401 Indian Creek Pkwy (W. 109th st.), Overland Park, 66210
- 입장료 : 개인당 \$5.00(점심포함) 5세 이하, 65세 이상 무료

주간 전례

- 9/21(월) :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 9/23(수) :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오상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본당 신부에 대한 공적인 보고경로 안내

- 본당 신부에 대한 공적인 보고는 꼭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공지

- 초등부 교리 : 주일 오전10:00, 회관
- 중등부 교리 : 주일 오전10:00, 성당지하

교무금에 대하여

교무금의 부담은 신앙인의 기본 의무이며 신앙인이 받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어려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25가정이 교무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물 한 모금의 정성에도 보답하시는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말라3,10 “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마 침 |
|-----|-----|---------|-----|
| 283 | 512 | 167/156 | 285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항 복사 |
|----|-----------|----------|
| 금주 | 정병훈 보니파시오 | 안광민 야고보 |
| | 정예찬 미카엘 | 문호진 안토니오 |
| 차주 | 고평원 프란치스코 | 안광민 야고보 |
| | 이원준 요한 |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 제2독서 |
| 금주 | 최은미 아네스 | 차호섭 요셉 최선운 마리아 |
| 차주 | 박혜정 가타리나 |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 | |
|----|---------------|
| 금주 |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
| 차주 | 한가위 다함께 한 접시 |

헌금 봉사자

| | |
|----|-------------------|
| 금주 |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 차주 |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 영성체 | 헌금 | 교무금 |
|--|-----|------|-------|
| 9/13 | 85명 | 330불 | 1630불 |
| 이내익, 홍순익, 김정원, 차호섭, 이영민, 김도영, 김태중, 고영방 (총 8세대) | | | |

연중 제25주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5년 9월 20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림 묵상

순교자

이번 주일은 모진 박해와 끈질긴 회유를 이겨내신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의 순교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선열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는 세계의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유희과 고통을 굳건히 이겨내라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격려의 힘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

화 답 송 :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님께서 돌려 보내실제 저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저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
-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 주님께서 과연 저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저희는 못 견디게 기뻐했나이다. ◎
- 주님 사로잡힌 저희 겨레를 넘낼 땅 시냇물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은 곡식 단 들고 울 제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주님께서 과연 저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저희는 못 견디게 기뻐했나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39

<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증거하는 삶”



살아가면서 가끔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지, 왜 어떤 이들은 비교적 긴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이른 죽음을 맞게 되는지. 더욱이 별다른 잘못도 없는 아이들은 왜 죽음을 맞게 되는지. 또, 왜 어떤 이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보이는 삶을 살고, 왜 어떤 일들은 반대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들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선하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느님께서 이것을 보고만 계시는지. 이런 질문들은 끊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은 비단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제1독서의 지혜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서의 말씀은 세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의인들의 삶이, 죽음을 통해 신앙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이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그 밖의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신앙이라는 이유에서, 신앙을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생명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은 많

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이들이 꿈꾸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순교’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순교의 삶’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순교의 삶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매일, 날마다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서 믿음을 증거했던 분들이고, 그 결실이 바로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뿌리를 두지 않은 순교는 없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슴을 울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삶에서 마지막 죽음보다 그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집념과 믿음의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서는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티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피해 잠시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이방인 지역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숨이 넘어가듯 다급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녀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15,21-22 / 마르 7,24-26
유대인이 이방인과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예수님 시대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런 간청에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15,23-26 / 마르 7,27
예수님께서 강아지 운운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주인도 없이 먹이를 찾아다니며 사는 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강아지라는 말을 듣고도 전혀 불쾌한 표정 없이 더 가까이 다가가 청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엇이라 이야기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15,27 / 마르 7,28
예수님께서 미소를 환하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녀의 불굴의 인내심은 온갖 수모를 극복하여 소망한 것을 끝내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겸손하게 간청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청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